

건강보조식품과 몸보신의 모순

여동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건강의 문제에 관한 한 한국사람은 병 주고 약주는 모순투성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강은 유지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하면서도 특히 증산층 이상이면 그들은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대로 건강에 좋다면 못하는 것도 없고 몸보신에 효력이 있다면 먹지 못하는 것도 없을 정도이다.

지난 해인가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식품」이니 이상야릇한 「식품」들의 등장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더니 최근들어 다시 「정력제」나 「몸보신」이니 「곰살개즙」이니 「사슴보신계」니 하는 더욱 괴상 망측한 「식품」들 때문에 사회가 떠들석해졌다.

한국사람들은 「몸보신」—특히 허반신을 튼튼하게 하고 양기에 효력이 있다는 약재—에 지나치리만큼 비당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것 같다.

인삼, 녹용, 보신탕, 건강탕, 뱀탕—백사탕은 대단한 효능이 있다고 한다—검은 개구리, 웅담, 해구신, 흑염소탕, 개소주, 지렁이, 표고버섯 추출물, 영지버섯, 달맞이유, 진표올사의 이름까지

빌어 선전하는 개암죽염 등등은 특효 묘약으로 둔갑하여 날개돋친듯 팔린다고 한다.

선전의 내용대로라면 결핵이나 고혈압, 동맥경화증도 문제없이 치료되며 암이나 AIDS마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묘약들은 내지 못하는 효험이 없어 만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개암죽염 같은 특효약은 노화현상도 완전히 방지할 뿐더러 불모의 두피에서 모발을 소생시키는 발모촉진제 작용까지 한다고 한다.

현실을 망각하면서까지 그런 「묘약」의 효력을 무조건 믿어주는 한국사람들의 맹신을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에서 다시 없는 효능이 있는 그 신기한 묘약





현실을 망각하면서까지 그런 「묘약」의 효력을 무조건 믿어주는 한국사람들의 맹신을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에서 다시 없는 효능이 있는 그 신기한 묘약을 그렇게도 즐겨 복용하는 한국사람은 어찌하여 그런 약도 모르고 사는 국민들보다 수명이 짧은지?



을 그렇게도 즐겨 복용하는 한국사람은 어찌하여 그런 약도 모르고 사는 국민들보다 수명이 짧은지? 고혈압을 얼마든지 치료하는 특효약이 있는데도 어찌하여 한국사람들은 40-50대의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로서 세계의 으뜸이 되었는가?

앞으로 영양이 좋은 고유전통음식과 국민의 보신에 지나친 맹신을 이용하는 「건강보조식품」과 「정력제」를 구별하고 전자를 위생법에 맞게 하고 양성화시키면서 후자를 규제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개장국 즉 보신탕 같은 한국의 고유음식으로 간주하는 식품에 관해서 다른나라 국민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문제로 외국인들 앞에서 저자세로 나갈 것도 없다.

몇년전에 전두환 前대통령이 구라과의 4개국을 순방할 무렵으로 기억하는데 영국에서는 보신탕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을 미개인이거나 다름없는 인간으로 묘사, 매도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특히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럴 것까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신탕이 음식이라면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때려잡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되어야 할 것이며 개장국을 파는 음식점들은 반드시 양성화되어 위생규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지만 동물이 인간을 위한 피조물인 이상 확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를 포함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동물을 잡아도 무방하다. 개를 잡는 것은 특히 식용으로 키운 개의 경우 소, 돼지, 닭, 양 등을 잡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영국의 지배를 받는 홍콩에서 원숭이 골을 먹는 행위를 묵인해주는 영국사람들은 어찌하여 개를 잡아 먹는 행위를 산원숭이의 머리를 망치로 깨고 그 자리에서 골을 꺼내 날것으로 먹는 행위보다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개를 잡아 삶아 먹는 쪽이 훨씬 「신사」적이다.

애견사상이 지나쳐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고 값진 존재로 모시는 영국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경견사상이나 동물애호사상을 온세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지난 8월 4일 「여의도법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41명 중 52.5%가 보신탕을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에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조금도 타국민들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것도 없다.

그보다 큰 문제는 약효도 없는 것을 약으로 간주하면서 부유층이 야기시키는 사회문제이다. 최근에 신문지상으로 자주다룬 「몸보신」과 「정력제」 때문에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망신스러운 일들 바로 그것이다.

신문에 난 제목들과 기사줄거리를 대강 요약하면 「이번에 정력제로 나라망신」 「뱀탕 싹쓸이」 「정력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방콕에) 야생동물농장이 생겼다」 「사슴보신제 성행」 「곰솔개즙을 위해 동물학대」 「보신용 파충류 수입급증」 등등이다.

우선 문명과 문화수준을 항상 자랑하는 한국사람은 어찌서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는 정력제니 몸보신이니 우겨대는지 알 수 없다. 그 맹신으로 인한 낭비만 해도 엄청난 것이다.

한국인들의 극성스러운 정력제구입 덕택으로 곰솔개를 팔아 돈을 벌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이 곰을 밀렵해서 문제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인이 몸보신에 좋다면 다 좋아하기 때문에 피가 늘어난 미국인들은 겨울

철에 사슴들이 떨어뜨리는 뿔까지 주워 한국으로 수출하면서 짹짹한 재미도 보았다니 한국인들의 「몸보신」은 알 만하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6천 달러도 못되는 한국이 세계에서 무역되는 녹용의 70-80%와 세계시장에서 그 가격이 백배나 뛰게 할 만큼 해구신을 대량으로 수입한다는 사실은 과연 자랑스러운 일일까?

엄청난 돈을 쓰는 부유층이 갈망하는 「몸보신」을 위해 동물학대도 서슴치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각을 용납하는 사회는 과연 무엇으로 「새로운 세계의 건설」에 이바지하겠는가?

얼마전에 국회에서 질의를 받는 정부당국의 어르신네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그러나-」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펴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들을 낭독했지만 부유층에 대해 지극히 관대한 정부당국은 과연 문제의 폐단을 없앨는지 의문이다.

농민이나 근로자들의 노고와 땀을 가뭇게 생각하면서 서슴치 않고 사슴피 10cc를 50만원을 주고 사마시며 곰발바닥요리 한 접시에 백만원을 지불하고 잡수시는 고급인사들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 같다. †